

희망 사례비, 파트 전도사 132만 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

신대원생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이며, 신학대학원에서의 신학교육은 이들이 건강한 신앙과 영성을 바탕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양분이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연합신문이 신대원생들의 신앙생활, 진로, 신학교육, 사역 전반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대원생의 사역과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백석, 합동, 통합, 감리교 등 22개 신학대학원 재학생 45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분석을 담당했다.

또한, 2015년 실시한 신대원생 조사(기독교연합신문)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신대원생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추적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미래 목회자 양성 방향과 신학교육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교회 사역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술제

원전수백기

부티가온다-성경 복음의 재발견을 통한 믿음의 본질

영신대박사

칼빈, 개혁교회의 길을 열다-〈기독교강요〉로 본 칼빈의

유정림박사

웨슬리, 성서적 구원의 길을 열다-존 웨슬리의 주-개

새로남창로교회 / 새로남창로교회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원생 생활과 사역 인식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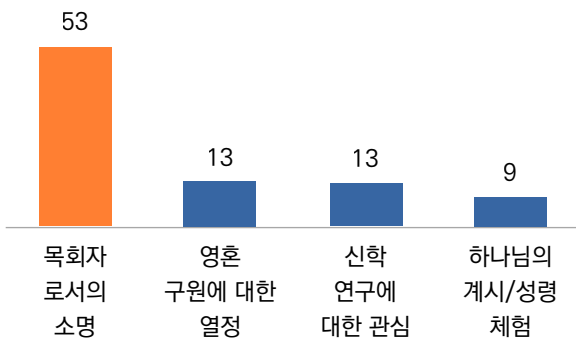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의 신학대학원 재학생 (22개 학교) - 조사 대상 신대원 : 감신대, 고신대, 목원대, 백석대, 부산장신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아신대, 웨스트민스터, 장신대, 총신대, 침신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합신대, 호남신대 등
조사 방법	온라인,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총 455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 총 조사된 455명을 각 학교별 정원 비율로 가중치 부여함
조사 기간	2025년 3월 7일 ~ 2025년 3월 14일 (총 8일간)
조사 주체	기독교연합신문사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비 고	조사 결과에서 비교한 2015년 자료는 2015년 기독교연합신문사 주최로 조사한 “신학대학원생의 의식과 사역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 조사대상 : 신학대학원 재학생 300명 - 조사기간 : 2015.04.15. ~ 2015.09.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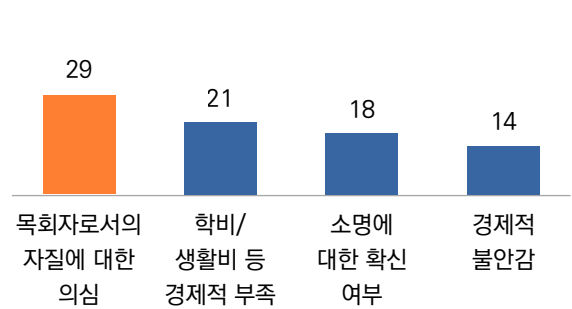
[신대원 입학과 진로] 신대원생 53%, '목회 소명' 따라 신대원 입학

- 신대원 입학 동기로는 신대원생 절반 이상(53%)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꼽았다.
- 신대원 입학 시 고민했던 것으로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명에 대한 확신 여부'와 함께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신중한 사명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 그 외 '학비/생활비 등 경제적 부족'과 '경제적 불안감' 등 경제적 요인도 진학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소로 드러났다.

[그림]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 (2025,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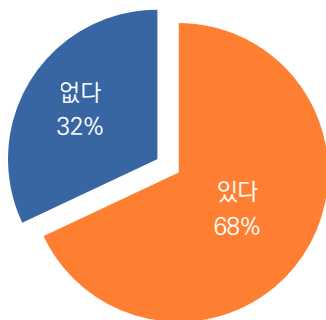
[그림]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고민했던 것 (2025,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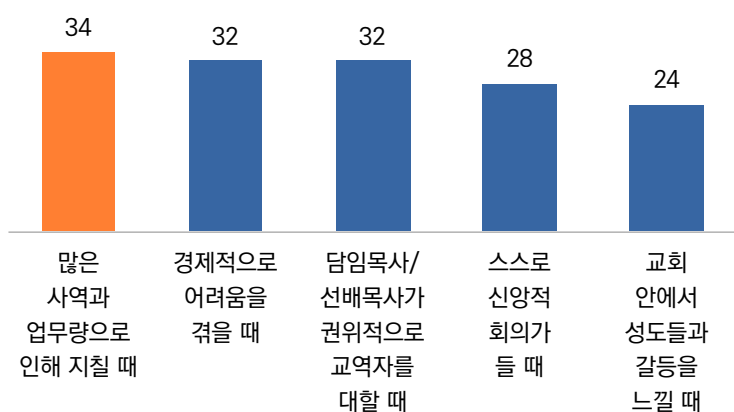
신대원생 68%, 목회자 소명에 대해 후회한 적 있다!

- 신대원생들에게 목회자로서 소명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1+2순위), '후회한 적이 없다'는 32%, '후회한 적 있다' 68%로 나타났다.
- 후회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많은 사역과 업무량으로 인해 지칠 때'(23%),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22%), '담임목사/선배목사가 권위적으로 교역자를 대할 때'(22%)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후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목회자로서 소명에 대한 후회 여부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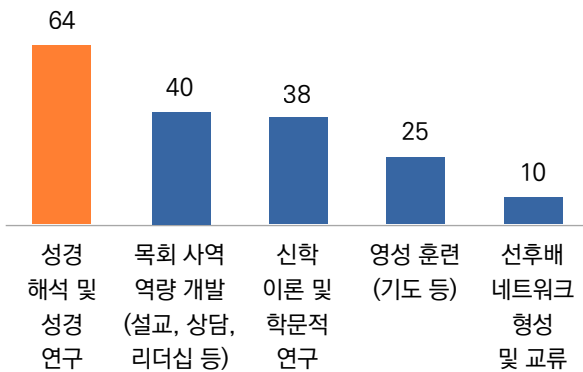
[그림] 목회자로서 소명 후회 내용 (후회한 적 있다 응답자,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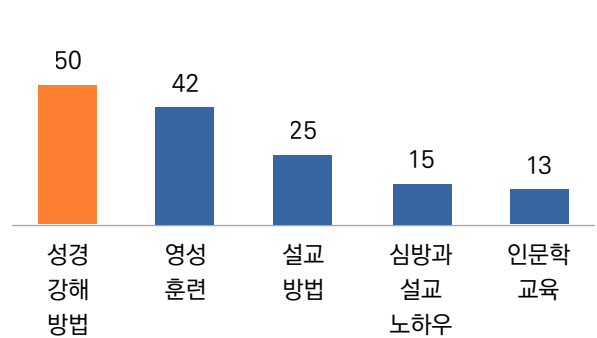
신대원 교육에서 강화 부분, '성경 강해 교육'!

- 신대원 생활 중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1+2순위)는 '성경 해석 및 성경 연구'(6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목회 사역 역량 개발' 40%, '신학 이론 및 학문적 연구' 38% 순이었다.
- 신대원 교육에서 가장 강화되기를 바라는 영역으로는 '성경 강해 방법'이 50%로 1위로 꼽혔다. 이는 신대원생들이 성경 해석과 강해 방법 등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그림] 신대원 생활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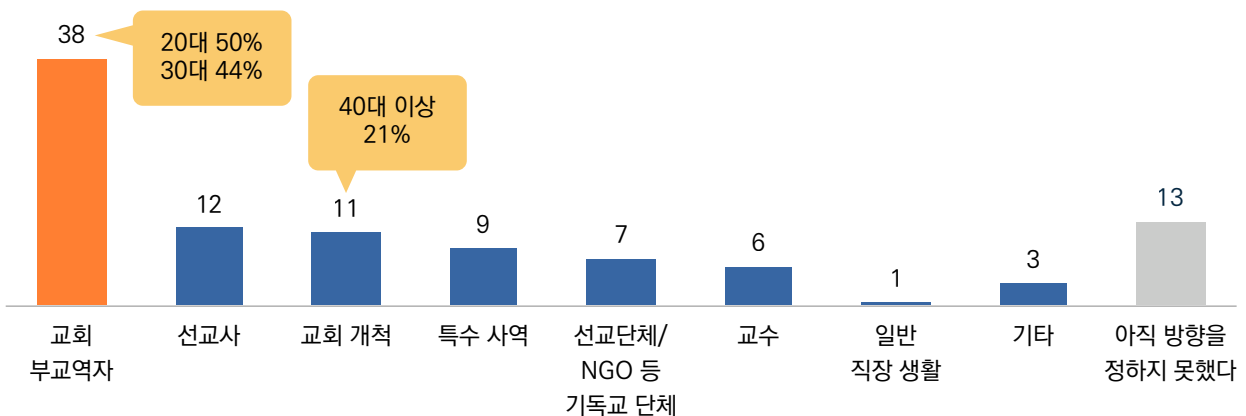
[그림] 신대원 교육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
(1+2순위, 상위 5개, %)



신대원생 49%, '교회 부교역자/교회 개척 하겠다'!

- 신대원 졸업 이후 계획으로는 '교회 부교역자'(38%)를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선교사' 12%, '교회 개척' 11% 순이었다.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신대원생도 13%로 8명 중 1명 가량 되었다. 전체적으로 49%의 신대원생들이 졸업 후 교회 사역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교회 부교역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는 '교회 개척'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40대 이상의 부교역자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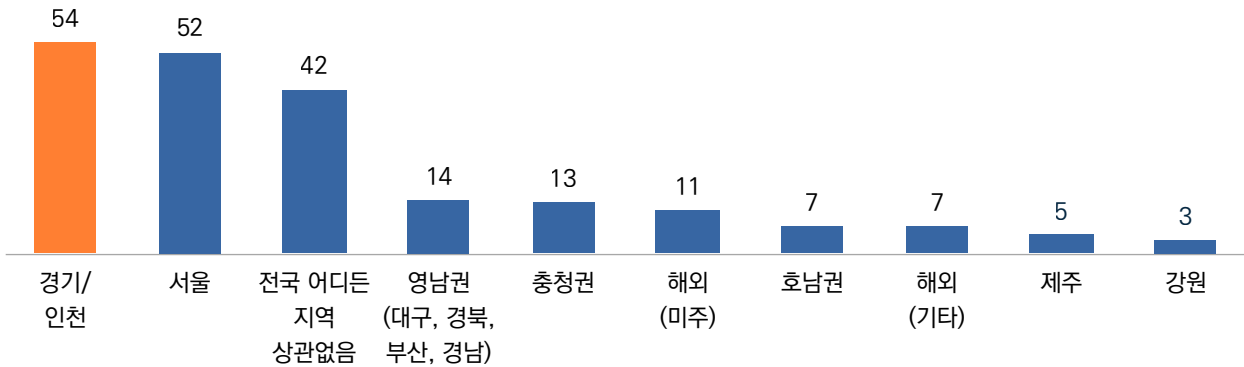
[그림] 졸업 이후 진로 (%)



향후 부목사 사역 시, 절반 이상은 '서울/수도권' 희망!

- 향후 부목사로 사역할 경우 어느 지역까지 희망하는지를 묻은 결과, '경기/인천'(54%)과 '서울'(51%) 등 서울·수도권 선호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 반면 '전국 어디든 지역 상관없음' 응답도 42%로 적지 않았으며, '제주'와 '강원'은 각각 5% 미만으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그림] 향후 부목사로 사역시 희망하는 지역 범위 (향후 부목사로 사역하려는 자,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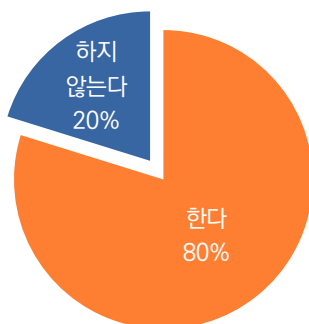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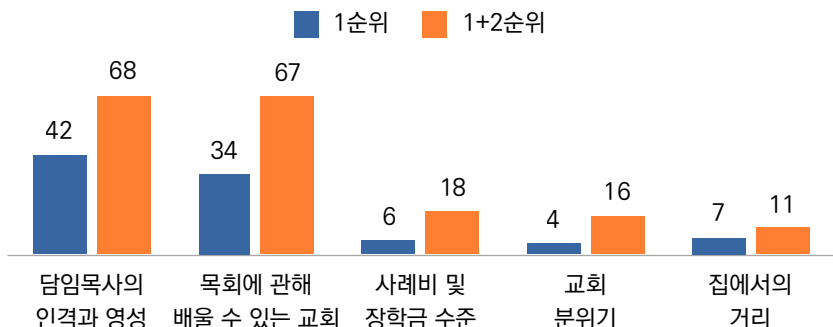
[현재 사역 현황과 교회 선택] 사역지 선택 기준 1순위, '담임목사의 인격과 영성'!

-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신대원생 비율은 80%로, 대부분이 사역에 참여 중이었다.
- 사역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1순위 기준)으로는 '담임목사의 인격과 영성'(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목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교회', '사례비 및 장학금 수준' 순이었다. 이는 사역지 선택에 있어 물질적 조건보다 목회자로서의 배움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현재 교회 사역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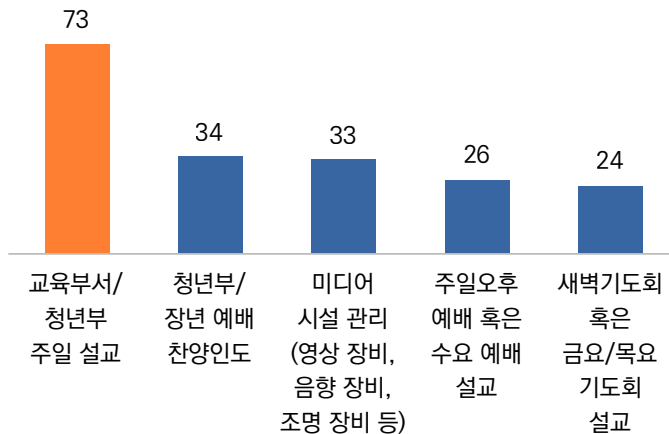
[그림] 사역할 교회 선택하는 기준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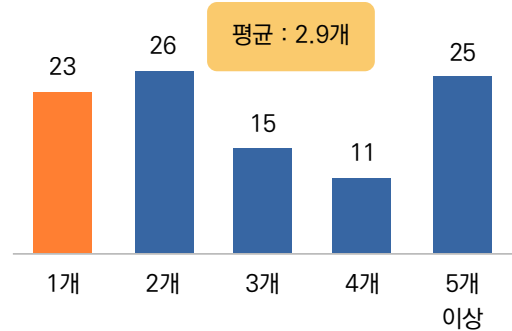
신대원생 4명 중 1명, '5개 이상' 사역 감당 중!

- 현재 신대원생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교육부서/청년부 주일 설교'가 73%로, 신대원생 10명 중 7명은 교육부서 중심 사역(유아·유치부~청년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청년부/장년 예배 찬양 인도'(34%), '미디어 시설 관리'(33%) 등의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역의 개수를 보면 평균 2.9개였고, '5개 이상' 사역을 하는 경우도 25%로 조사됐다. 신대원생들의 과중한 사역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현재 하고 있는 사역 (현재 사역하는 자, 상위 5개,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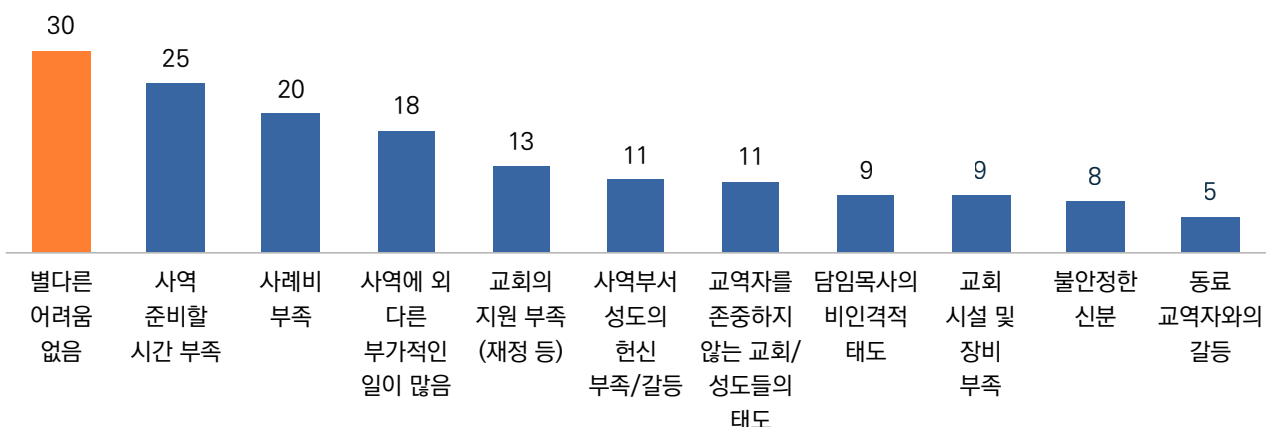
[그림] 현재 하고 있는 사역 개수 (%)



교회 사역의 가장 큰 고충, '사역 준비할 시간 부족'!

-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신대원생 중 30%만이 '사역 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고(1+2순위), 나머지 70%는 사역 과정에서 다양한 고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이 교회 사역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역 준비할 시간 부족'(25%)이었다. 학업과 사역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 사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현재 사역하는 자,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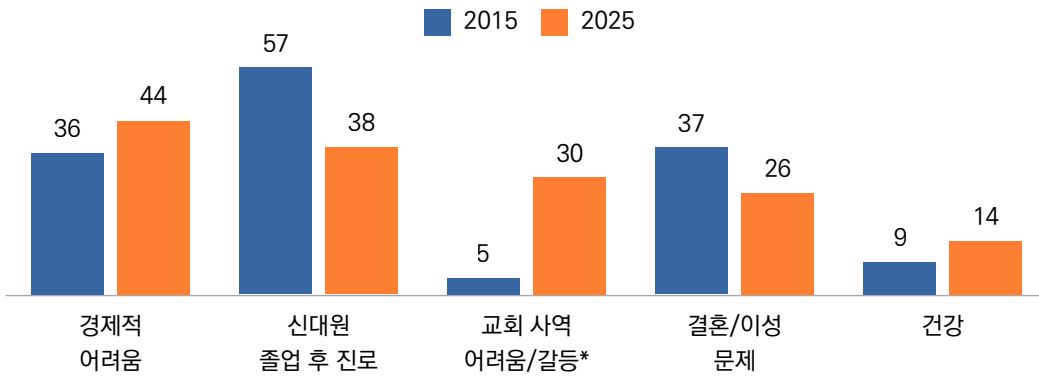
03

[사례비와 사역 조건]

신대원생의 고민, 10년 전에는 '진로',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

- 신대원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10년 전에는 1위가 '졸업 후 진로'(57%)였는데, 2025년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44%)으로 변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위기를 신대원생들도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현재 고민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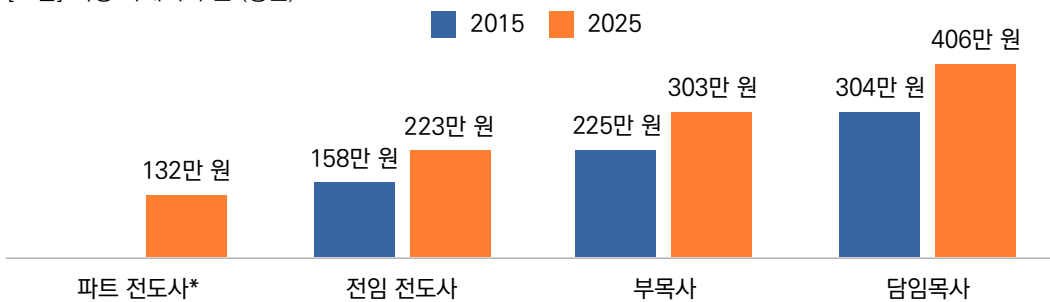


*2015년 조사 보기에는 '사역' 4.0%, '교회 안의 문제' 0.7% 나뉘어져 있어, 보기를 합한 수치임.

희망 사례비, 파트 전도사 132만 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

- 신대원생들이 생각하는 적정 사례비 수준은 2015년 조사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기준, 파트 전도사의 적정 사례비는 132만 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으로, 전임 전도사의 경우 10년 전보다 65만 원 증가했다.
- 부목사의 적정 사례비는 2015년 225만 원에서 2025년 303만 원, 담임목사는 304만 원에서 406만 원으로 각각 78만 원, 102만 원 상승했다.

[그림] 적정 사례비 수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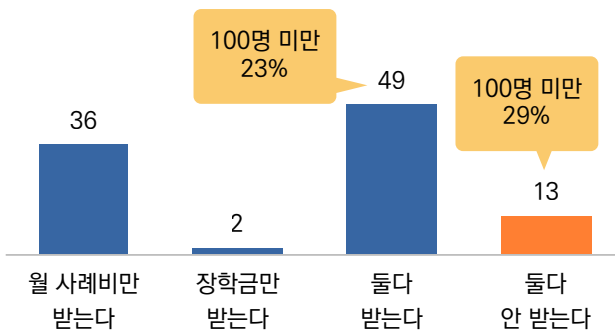


*파트 전도사는 2025년이 첫 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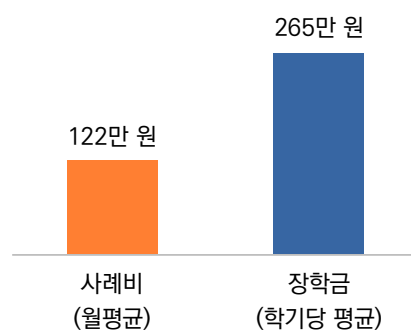
사역 중인 신대원생 8명 중 1명(13%), 사례비도 장학금도 없이 사역 중!

- 현재 교회 사역 중인 신대원생들에게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 형태를 묻은 결과, ‘월 사례비와 장학금 둘 다 받는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둘 다 안 받는 경우’도 13%로 나타나 신대원생 8명 중 1명은 무보수로 사역 중인 현실이 드러났다.
- 특히 ‘100명 미만’ 소형교회에서는 ‘둘 다 받는다’는 비율이 낮고, ‘둘 다 안 받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형교회 파트 사역자의 보상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신대원생이 교회에서 받는 월평균 사례비는 122만 원으로, 앞서 조사된 희망 사례비(132만 원, 파트 전도사)보다 10만 원 낮았고, 학기당 장학금은 평균 265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림] 교회에서 받는 사례 형태 (현재 사역하는 자, %)



[그림]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현재 사역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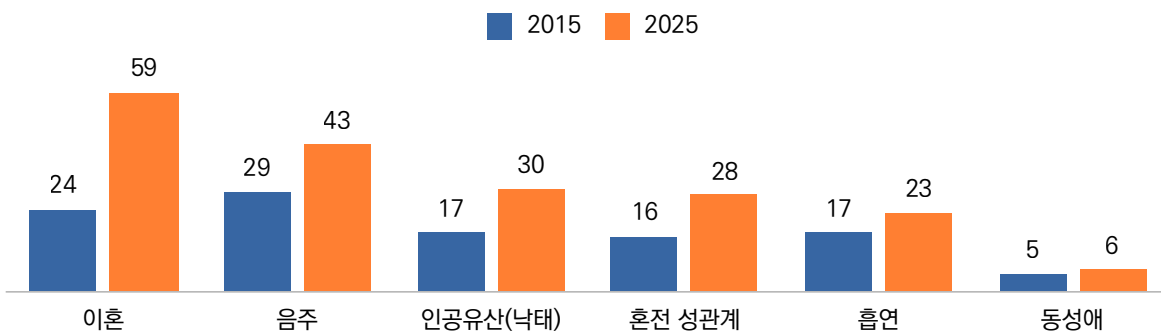
04

[기타]

10년 전과 비교, 신대원생의 윤리의식 크게 약화!

- 신대원생 대상으로 음주, 흡연, 이혼 등 6가지 윤리 항목에 대해 인식을 묻은 결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해도 무방하다’는 긍정률은 2015년 조사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혼’에 대한 긍정률은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음주’, ‘인공유산(낙태)’, ‘혼전 성관계’ 허용 인식도 10%p 이상 상승해 주목된다. 이는 신대원생의 윤리의식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신대원생의 윤리의식 (본인 기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해도 무방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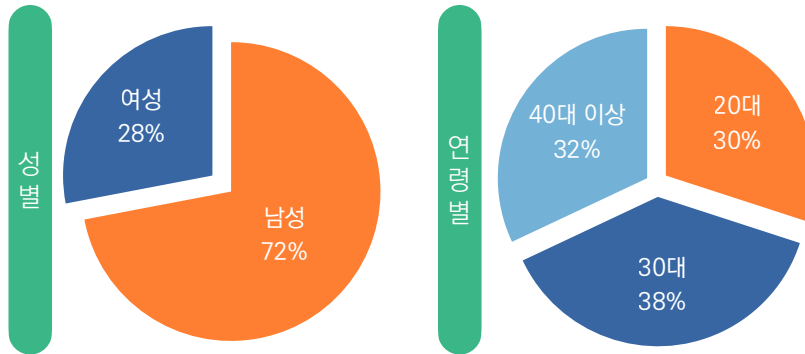


*3점 척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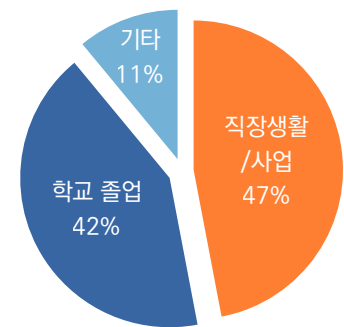
신대원생 3명 중 1명은 '40대 이상'!

- 응답자들의 성/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72%)이 여성(2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대는 20대 30%, 30대 38%, 40대 이상 32%로 신대원생 3명 중 1명은 4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 신대원 입학 전 하던 일을 묻은 결과, '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한 자(42%)보다 '직장생활/사업' 후 늦깎이 진학 비율(47%)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신대원생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림] 신대원생 응답자 특성별 분포



[그림] 신대원 입학 전 하던 일



이번호 요약

1. 신대원생의 고민, 10년 전에는 ‘진로’,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

– 신대원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10년 전 조사에서 1위였던 ‘졸업 후 진로’(57%)에서, 2025년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44%)으로 변화한 점이 눈에 띈다.

2. 신대원생 49%, ‘교회 부교역자/교회 개척 하겠다’!

– 신대원 졸업 이후 계획으로는 ‘교회 부교역자’(38%)를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선교사’ 12%, ‘교회 개척’ 11%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49%(부교역자+교회 개척)의 신대원생들이 졸업 후 교회 사역으로 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희망 사례비, 파트 전도사 132만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

– 신대원생이 생각하는 적정 사례비(2025년 기준)는 파트 전도사 132만 원, 전임 전도사 223만 원으로, 전임 전도사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 65만 원 증가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다양한 목회방향 모색하는 신대원생들 (CBS뉴스)

관련 성경 구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목회 적용점

이번 신대원생 조사의 응답자 분포를 보면 20대 30%, 30대 38%, 40대 이상이 32%로, 신대원생 3명 중 1명이 40대 이상이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신대원생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현재의 고민거리 질문에서 2015년 조사에서는 ‘졸업 후 진로’가 1위였는데, 2025년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신대원생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과거보다 더욱 심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신대원생의 고령화는 진로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20~30대는 졸업 후 ‘교회 부교역자’로의 길을 계획하지만, 40대 이상 신대원생은 교회 부교역자보다는 교회 개척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교회들이 연령이 높은 부교역자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40대 이상 신대원생 역시 낮은 나이 부교역자 생활이 쉽지 않고, 또 언제까지 사역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교회 개척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회는 부교역자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고연령 신대원생의 사역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등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역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적정 사례비 기준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신대원생이 생각하는 ‘파트 전도사’ 적정 사례비는 평균 13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현재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비와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확인해, 차이가 크다면 개교회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